

라틴아메리카의 강제실향민과 젠더박해: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 사례를 중심으로*

차 경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 사례를 중심으로 무력분쟁지역에서 강제이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젠더박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젠더박해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 헤게모니 남성성에 기초하여 위계화 및 권력과 관련을 맺고 발생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일상의 폭력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실향민 연구에서 젠더의 특수한 상황과 취약성 그리고 현장의 요구는 과소평가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을 대상으로 무력분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젠더박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젠더박해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남성 피해자의 경험은 은폐되어왔다.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주변화된 이성애 남성들도 차별화된 방식으로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무력분쟁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젠더박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축소되고 은폐된 약자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주제어: 무력분쟁, 권력과 위계화, 젠더박해, 국내실향민, 차별과 불평등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81030).

1. 머리말

무력분쟁, 기후위기, 식량부족, 경제악화 그리고 Covid-19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강제실향민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위원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세계적 차원에서 강제실향민은 전년대비 700만 명이 증가했다. 강제실향민 최대 송출국은 시리아로서 9년 전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현재 인구 절반이상이 강제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다(유엔난민기구 2020:3-4). 2020년 전 세계 강제실향민은 8,240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의 규모를 기록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40만 명의 신규 난민신청자가 발생했다.¹⁾ 2022년 코로나 확산으로 강제실향민은 더욱 증가하여 현재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계도처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난민기구 2021:5).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세계적 규모의 국내실향민 발생지역이다. 세계 난민 2위국인 베네수엘라는 강제실향민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 역내 17개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국외체류 베네수엘라 강제실향민중 난민신청자수는 540만 명에 이른다(유엔난민기구 2020:21). 콜롬비아의 경우 세계 난민1위국인 시리아 보다 약 200만 명이 더 많은 83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유엔난민기구 2020:4). 멕시코 역시 강제실향민 대부분이 국내실향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미에서도 국내실향민 규모는 확산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함께 마약 및 테러와의 전쟁을 목적으로 추진한 국가안보정책을 계기로 확산된 무력분쟁격화로 단기간 최대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게릴라조직

1) 강제실향민은 난민, 국내실향민, 난민신청자 그리고 국경을 넘어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전체 강제실향민의 65%를 차지하는 국내실향민은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며 상황에 따라 국경을 넘는 예비 난민으로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말 전 세계 국내실향민은 4,570만 명에서 2020년 말 4,800만 명으로 증가했다(유엔난민기구 2022:4-5).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Colombianas:콜롬비아무장혁명군)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에 의해 추진된 협정이행 정책은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여 국내실향민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실향민 문제에 있어서 국내실향민은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이주의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을 떠도는 국내실향민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환 가능성이 없는 실향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기존 실향원인에 더하여 젠더에 기반 한 박해가 강제이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지역 각국 정부는 젠더적 특성을 반영한 강제실향민 보호 및 예방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특수한 젠더 취약성 및 현장의 요구는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 또한 무력분쟁지역에서 강제이주의 원인으로 작용한 젠더박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도 사실이다(Diego Edwin 2018:95-97).

무력분쟁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주변화 된 여성뿐만 아니라 이성에 남성들도 위계화 및 권력관계 속에서 젠더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젠더박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남성 피해자의 경험은 은폐되었다. 분쟁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젠더박해 피해사실은 더욱 축소되거나 단순한 신체적 피해로 간주되었다. 한편, 성별에 기초한 차별과 박해가 깊게 뿌리박힌 콜롬비아사회에서 무력분쟁지역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LGBTI)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정당화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LGBTI에 대한 박해를 지원하였다. 남성중심의 콜롬비아 사회에서 LGBTI에 대한 박해는 분쟁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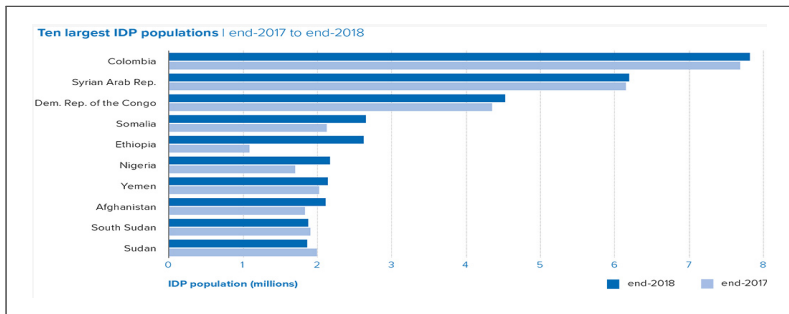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일상에 만연한 젠더박해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수 있는 LGBTI에 대한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겨두고, 무

력분쟁 전개과정에서 강제이주의 원인으로 작용한 젠더박해의 주요 유형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 사례를 중심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론에서 소외된 약자의 경험을 복원하고 왜곡되었던 약자와 소수자의 불평등한 현실극복에 대해 제고해 보고자한다.

II.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현황

2018년 세계 강제실향민은 7,080만 명으로 하루 37.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유엔난민기구 2018: 4). 강제실향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7,980만 명, 2020년 8,24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8,930 만 명으로 확대되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실향민이 발생했다(유엔난민기구 2020:4). 세계적으로 정치적 박해, 종족 및 종교적 반목, 인종차별, 자연재해 그리고 젠더박해로 2022년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실향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림1〉 세계 상위 국내실향민 발생국가(2017-2018)



출처: UNHAR(2018),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라틴아메리카지역은 글로벌 위기와 함께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무력

분쟁과 폭력으로 대규모의 강제실향민이 발생했다. 역내 주요 국내실향민 발생국인 멕시코는 기존의 강제이주 원인의 악화와 함께 마약 범죄로 국내실향민이 증가했다. 멕시코의 로스 세타스(Los Zetas)와 시날로아(Sinaloa)조직은 세계 최대 마약카르텔로 알려진 콜롬비아의 클란 델 골포(Clan del Gof)와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여 코카인을 유통하고 있다. 경제적 이권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조직의 폭력을 동원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국내실향민이 증가했다.

2021년 멕시코의 국내실향민은 379백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인구 480명당 1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 국내실향민은 주로 마약범죄와 관련된 지역에서 증가했다. 2020년 홍수, 폭풍 및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구 5,170명당 1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으며, 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실향민은 18,700명에 이른다(Porindicadores 2022). 멕시코에서 최근 발생한 국내실향민은 마약범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20년까지 약 830만 명 이상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실향민은 1940년대 중반 발생한 정치폭력사태와 1960년대 등장한 좌익게릴라조직의 활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FARC 및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민족해방군)등 좌익 게릴라조직은 마약범죄 조직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무력으로 정부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게릴라조직은 마약범죄 조직과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무력분쟁이 격화되자 콜롬비아 정부는 게릴라 통제지역을 긴장완화 지역으로 조성하며 공권력 철수를 통해 게릴라조직과 휴전협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게릴라조직의 테러 및 납치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평화협상 불가를 선언한 우리베(Álvaro Uribe Vélez)정권이 등장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 아래 힘에 의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리베 정부의 안보정책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게릴라소탕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양산된

AUC(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콜롬비아연합자위대)가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하여 콜롬비아는 단기간 세계 최대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

〈그림2〉 콜롬비아 강제실향민 증가현황(2012-2020)



출처: Jennifer Gutiérrez & Francy Barbosa(2021.02.16), 「DesplazamientoForzado en Colombia ¿Qué pasó en 2020?」, 「CODHES」.

지난 10년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산토스(Juan Manuel Santos)정부가 게릴라조직과 평화협상을 추진함에 따라 2013년부터 국내실향민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6년 평화협정 체결로 국내실향민이 급감했다. 그러나 협정이행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폭력이 발생하여 2017년부터 국내실향민은 다시 증가했다. 산토스 정부가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도입한 농촌개발특구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ZIDRES(Las Zonas de Desarrollo Rural, Económico y Social)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다국적 농기업의 농촌진출이 확대되었다(Sánchez Rodríguez 2017:83). 그 결과 원주민 및 농민보호지 등 공공유산 토지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점유는 확대되었고,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한은 축소되었다(Moreno Sanmiguel 2017:31). 이러한 상황아래 2018년 평화협정에 대한 회의론을 전개하며 협정이행 수정 및 축소 입장을

유지한 두께(Iván Duque)정부가 등장하여 개발특구구성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시장개방 등 퇴행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토지를 둘러싼 갈등심화와 함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실향민이 증가했다.

협정이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는 무기를 반납한 FARC 반체제 인사 및 잔존세력의 재무장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평화협정체결 이후 FARC 공백기에 초코(Chocó), 나리뇨(Nariño), 안티오키아(Antioquia) 그리고 볼리바르(Bolívar)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장조직의 마약밀거래 및 생산경쟁이 심화되었다(CODHES 2016). FARC가 통제해온 불법작물 재배지가 정부에 의해 폐쇄되자 협상을 거부한 FARC 잔존세력은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거나 다른 조직에 편입되어 불법작물재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정부의 공격으로 불법작물생산지가 아마존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초코 주는 무력분쟁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불법작물 주요 재배지 나리뇨 주는 불법작물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유지되어 국내실향민이 신규로 등록되었다. 또한 과거 마약카르텔의 중심지였던 안티오키아 주에서는 AUC를 발판으로 성장한 ‘클란 델 걸포’가 마약밀매 및 불법광산 활동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국내실향민이 증가했다. 평화협정체결 이후 ELN 및 ‘클란 델 걸포’ 통제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실향민이 증가했다. AGC(Autodefensas Gaitanistas de Colombia: 가이탄주의 자위대)로도 불리는 ‘클란 델 골포’는 정부에 의해 해체된 AUC잔존세력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무장조직이 경쟁과 동맹을 거쳐 성장한 최대 마약범죄조직이다. AGC는 점조직으로 전국 560개의 마약범죄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으며(Revista Semana 2016.03.13) 불법광업 및 농민토지강탈, 청부살인, 인신매매 그리고 강제징집을 통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Defensoría Delegada para la Prevención de Riesgo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2018).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콜롬비아의 강제이주의 특징은 국내실향민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실향의 장기화 그리고 젠더에 기반 한 박해가

강제이주 증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무력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젠더박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분쟁격화지역 일수록 젠더박해는 빈번하게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주민은 무장한 남성의 이익 추구의 희생되었으며, 분쟁지역을 이탈한 국내 실향민은 반복되는 이동과 정착과정에서 또 다른 박해를 경험함으로써 실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III. 무력분쟁지역 젠더박해

난민법에서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박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젠더박해는 젠더에 기반 한 위협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젠더박해는 가정폭력, 억압과 착취, 차별, 성폭력, 강제매춘, 인신매매, 강제임신 및 낙태, 강제결혼, 생식기 훼손 및 절단 그리고 성고문 등이다(UNHCR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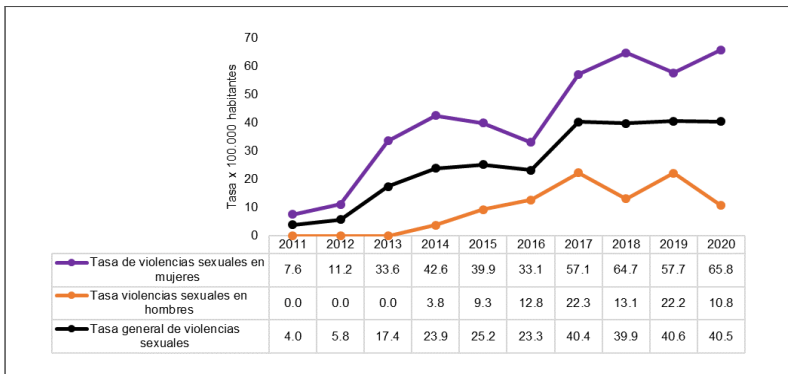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젠더 개념에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규정된다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반드시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적 가치와 규범이 반영되어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김현미 2014:63-67).

그동안 젠더박해는 주로 성별에 기반 한 불평등과 여성의 피해사실에 대한 강조에 집중되었다. 콜롬비아의 사회학자 다니엘라(Daniela López)는 대부분의 국외 법률체계가 대표적인 젠더박해인 성폭력을 여성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²⁾. 또한 성폭력의 의

미를 단순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Daniela López 2019). 성폭력은 무력사용, 강압, 심리적 억압, 권력남용 또는 폭력을 동원한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여성의 신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적인 폭력범죄(김태명 2011:5-44)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쾌감, 공포 그리고 불안 조성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정의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9).

오늘날 성폭력은 법의 언어를 뛰어넘어 광범위하고 다층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강간, 인신매매, 강제누드, 성적학대 및 착취, 강제불임, 강제임신, 강제낙태, 성기절단, 음란물 제작, 성고문, 성노예, 성희롱 그리고 의무적인 성행위 관람 등이 모두 해당된다(Centro Nacional de Memoria Histórica 2021.06.19.).

〈그림 3〉 콜롬비아의 성폭력발생 현황(2011~2020)



출처: Camilo & Sergio 2022:500.

- 2) 세계 인권선언 및 여성관련 협약 등 국제인권문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국제 권리장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등 국제협약은 여성에 대한 박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참조바람.

무력분쟁은 다양한 형태의 젠더박해 상황으로 내몰리는 조건을 형성했으며, 분쟁지역 젠더박해는 주로 성폭력과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다. 콜롬비아의 무력분쟁이 격화된 2012년부터 성폭력이 증가했다. 2016년 평화협정 체결로 성폭력이 감소했고, 2017년 정부의 협정이행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어 무력분쟁 재발과 함께 성폭력이 증가했다. 남성대상 성폭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폭력이 감소하던 2015년~2016년 오히려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9년 정점에 달했다.

성별에 기초한 불평등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콜롬비아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남성에 대한 젠더박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과 LGBT에 대한 박해보다 상대적으로 은폐되고 축소되었다(José Antonio y Iañez Antonio 2014:160-169).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간 유대는 여성적인 것을 배제하고 남성성을 보존함으로써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간 관계를 정의 할 때 자유는 핵심적인 가치로서 자유를 가진 자만이 사람이며 종속되지 않는 능동적인 남성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성의 독점물인 능동적인 자유는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였다. 능동적인 자유보존을 위한 필수요소는 남에게 지배받지 않을 힘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무장할 수 없거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남성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전쟁에서 남성 포로를 강간하는 것은 적의 남성성을 제거하여 적을 수동적 존재인 여성화하는 행위를 의미했다(엄기호 2015:372-376). 따라서 무력분쟁 상황에서 스스로 무장할 힘이 없는 남성은 여성화 되어 젠더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2013년 세계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분쟁지역의 경우 여성과 남성대상 성폭력 사건은 예상외로 큰 격차가 발견되지 않는다(Workshop on Sexual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in Conflict Situations 2013.06.25-26.). 무력분쟁지역에서 남성

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젠더박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남성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은폐되었다. 무력분쟁지역에서 전개되는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성적지향 및 취향과 무관하게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다(López Cárdenas 외 2017:204-208).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주변화 된 여성뿐만 아니라 이성애 남성들도 위계화 속에서 젠더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쟁지역의 젠더박해는 주로 성폭력과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다. 본장에서는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체결 이후 형성된 과도기적 정의이행에 관한 평화특별사법권 JEP(la Jurisdicción Especial para la Paz)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사례를 토대로 무력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젠더박해의 주요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강간 및 성적학대

콜롬비아는 역대 최대 성폭력 발생국이다. 2015년 무력분쟁 주요 발생지역인 푸투요, 과히라, 메타(Meta), 카우카(Cauca) 그리고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는 총 10,042명이며 피해자의 90%는 여성이다. 2020년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는 15,760명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14세~17세의 아프리카계 후손과 원주민 여성이다. 콜롬비아의 역사기억센터의 고문 낸시(Nancy Prada)는 분쟁지역의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찍기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전과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Harold García 26 de Mayo de 2015).

“마를레네(Marlene)는 23세의 흑인 여성으로서 준군사조직의 거점지인 라 메사(La Mesa)에 위치한 인근 마을에 살았다. 준군사조직은 마을에 도착하여 여성들에게 옷차림 등 엄격하게 일상행동을 통제하며 자신들이 제시한 규정준수를 명령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파티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폭력과 고

문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마를레네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준군사조직 지휘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마를레네를 강간하고 납치하였으며, 마를레네는 그의 성노예가 되었다. 그는 마를레네에게 남편, 형제 그리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동거를 강요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그녀는 몇 달을 범죄인과 함께 살았고 [...] 갖은 노력 끝에 탈출에 성공하였다. 마를레네는 마을에 도착해서야 이미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지역사회는 그녀에게 낙인을 찍어 외면했다.”(César M. Dueñas 2008)

마를레네가 겪은 비극은 분쟁지역 여성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다. 2020년 JEP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는 총 34,209명으로서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성폭력은 FARC, ELN 게릴라조직 및 AGC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JEP 2022.03.15). 피해자는 주로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 농민으로서 빈곤과 불평등은 젠더박해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사실을 폭로해야하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을 선택한다. 지역사회는 피해여성들을 낙인찍어 외면했으며, 성폭력을 규정위반 처벌로 인정했다. 무장조직은 폭력을 정당화 했으며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여성에게 교정폭력이라는 명목 하에 강간을 일삼았다. 반복되는 위협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Carcedo 2010:40-42).

“성폭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침묵이고, 내 몸과 내 이야기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알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웠다. 수년 동안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침묵해야했다. 우리는 침묵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

다.”(ONU 2019.02.15)

다양한 법적구속 장치로 인해 성폭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하고 보편화 되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적으로 느끼는 감정, 욕망, 실천, 정체성, 행위들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의 보호자”로 간주되어 여성의 명예를 남성의 명예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적에게 굴욕감을 주고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작용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외부전투 참가 보상으로 활용되었다(Avaleria Medina 2021:9-15).

한편, 성폭력을 여성과 여아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경향은 남성 피해 사실이 은폐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고문행위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취급되었다. 오소리오(Osorio)는 200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판결사례를 지적하며 분쟁지역 남성에 의한 남성 강간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강간을 “성기에 의한 질의 강제삽입”으로만 발생한다고 인정하여 남성이 강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에서도 성폭력 및 젠더박해는 여성의 피해사실에 집중되어 있다(Osorio 2008:29-40).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금기시 되는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강간은 여성의 경험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무력분쟁지역에서 만연한 남성에 대한 강간, 성적굴욕, 생식기 채찍질, 생식기 물건침투, 강제 근친상간 및 생식기 거세 행위는 헤게모니 남성성의 상징적 행위로 정당화 되었다³⁾. 이와 같이 "진정한 남성성"은 권력, 지배,

3) 여성성의 대응개념인 남성성(Masculinity)은 다층적 개념으로서 남성사회 내의 서열화 된 폭력문화와 위계적인 병영문화를 대표한다.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도 권력소유 유형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 일반에게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성은 남성간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식솔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며, 여자와 남자는 경쟁과 적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가부장적 남성성’은 연관되어 있으며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구효

군국주의 및 폭력과 관련을 맺고 강화되었다(Amrita Kapur & Kelli Muddel 2018:6-10).

가부장적 문화는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 유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남성대상 젠더박해 사실은 더욱 고립되고 축소된 사건으로 은폐되고 있다. 남성 피해자 역시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피해사실을 “남자답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Gabriel Gallego 2022.02.20). 16년 동안 국내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스케라(Mosquera)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다.

“나는 아내와 강간당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강간을 당했고, 나의 아내도 강간당했다. 당시 12살과 16살짜리 내 딸들도 역시 강간을 당했다. 이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나는 두 번의 강간 사건 이후 숲으로 피신하여 보고타로 탈출했다. [...] 처음 우리는 인종차별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무엇보다도 나의 남성성의 심받지 않도록 행동한다.”(Javier Sulé 2022.03.27.)

콜롬비아의 국립법의학 연구소는 2004년~2016년 성폭력 남성피해자 373명을 치료했다. 2016년 태평양의 항구도시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와 투마코(Tumaco)에서 국경없는 의사회가 치료한 722명의 성폭력 피해자 중 10%는 남성이었다(Lina M. y Céspedes-Báez 2018). 무력분쟁 격화지역인 우라바(Urabá), 몬테스 데 마리아(Montes de María), 네바다 산맥(la Sierra Nevada) 그리고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 접경지역 등 주로 주로 특정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강간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Gabriel Gallego 2022.02.20.).

24세의 청년 벨스(Nelson Toscano)은 게릴라조직 ELN의 주요 활동 거점지인 베네수엘라 국경도시 쿠쿠타(Cucutá) 외곽에서 성장했다.

주 2021.11.14.).

ELN는 정부와 협상을 거부한 채 무력으로 정부를 위협하며 마약밀매에 개입하고 있다. 벨슨은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자 모임을 주도하며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9세와 17세 당시 AUC와 ELN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 무장조직이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나는 매일 사망자를 보았다. [...] 나는 9살 때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림을 사러 외출하는 삼촌을 따라 나섰다. 나는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고 나서야 삼촌이 무기를 배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삼촌이 배달간 사이 나는 긴 시간동안 두 남성과 함께 차안에 있었다. 삼촌이 돌아왔을 때 나는 울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다. 그러나 삼촌은 할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물라고 으박질렀다. [...] 그들은 강간 이후 마치 표시라도 하듯 칼로 내 귀를 잘랐다. [...] 시간이 흘러 8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친구와 건축자재를 싣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ELN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트럭에 나서를 하고 나의 친구를 허름한 농장으로 끌고 갔다. 저항한 나는 팔에 흉터가 생겼다. 그들이 사라진 후 나는 자신도 강간을 당했다며 울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보고타로 탈출했고, 나의 친구는 몇 달 후 자살했다.”(Javier Sulé 2022.03.27.)

초코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64세의 헤르만씨(Germán Mosquera)는 닭과 돼지를 키우고, 쌀을 경작하며 매일 낚시를 즐겼다. 2002년 마을을 점령한 FARC는 헤르만의 집을 침입하여 그의 눈앞에서 장남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강간했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이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헤르만은 FARC의 경쟁조직 AUC를 지원한다는 혐의로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

“[...] 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매질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저질렀다. 굴욕적이고 참담한 상황을 견뎌야 했을 뿐 저항은 죽음이었다. 그들은 나를 강간한 후 마치 표시라도 하듯 면도칼

로 나의 귀를 잘랐다. 나와 가족은 탈출할 기회가 없었고, 며칠 후 또 다른 FARC 전투원이 나의 집을 찾아와 같은 짓을 반복했다”(ibid).

2019년 3월17일 산타 마르타(Santa Marta)에서 개최된 무력분쟁지역 피해자 모임에 참가한 실베리오(Silverio)는 2000년 11월 막달레나에 위치한 로스 포소스(Los Pozos) 외딴마을에서 아버지와 도미노게임을 즐기던 중 무장남성들이 침입하여 아버지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 사건이후 뇌졸중을 앓았다. 그는 슬퍼했고, 죽이겠다고 분노했다. [...] 집에 나타난 6명의 무장남성들은 [...] 권위적인 어조로 강압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 갑자기 한 남성이 [...] 성희롱을 시작했고, 나는 남자로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굴욕감을 주기위해 나를 강간했다. [...] 아버지에게도 용서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질렀다. [...] 아버지는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 그러나 결국 정신불안과 위궤양으로 사망하셨다.”(JEP 2020)

강간은 남성성의 핵심을 공격하여 적의 심리를 교란하는 전략으로서 피해자를 비인간화하고 굴욕감을 주어 심리와 정서를 악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일부 남성의 경우 아들과 근친상간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다. 남성에 대한 강간은 성적체성이나 취향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남성성 상실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이성애 이외에 성적취향에 대한 편견이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탈행위가 아닌 힘과 권력을 동원한 억압의 기제로 활용된다 (Red de Mujeres Víctimas y Profesionales 2022:13-17).

2. 강제징집과 납치

2010~2017년 불법무장조직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징집하여 성폭력, 성노예, 강제낙태 및 강제임신 등 다양한 범죄를 자행했다. 2010~2019년 강제 징집된 아동과 청소년은 총 8,839명이며 이중 67%는 평균연령 17세의 남자로 알려졌다. 1980~2021년 학교에서 최소 881건의 아동 납치사건이 발생했다(Juan D. López 2019). 강제징집된 아동과 청소년은 강간, 강제임신과 낙태, 성노예 및 성적학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4〉 2000~2013년 강제징집 현황



출처: Juan D. López, El Tiempo, 19 de Noviembre de 2019.

불법무장조직은 소년병이 성인보다 순종적이고,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통제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강제징집을 주도하고 있다. FARC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을 강제징집했으며 AGC에 의한 강제징집은 주로 카사나레와 센타우로스(Centauros), 아라우카, 볼리바르, 카케타, 누티바라(Nutibara)에서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청소년이 강제징집된 지역은 카케타, 225명, 바페우스(Vaupés) 184명, 과비아레(Guaviare) 174명, 푸투마요 146명, 아라우카 144명, 메타(Meta) 124명, 카사나레 115명, 과이니아(Guainía) 100명 등이다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 2014:63-83). 2002년 초등학교 재학당시 FARC에 의해 강제징집 되었던 에스페란사(Esperanza)는 영문도 모른 채 남성의 손에 끌려가 낯선 곳에서 혹독한 군사훈련과 성적학대를 견뎌야했다.

“[...] 총을 들고 다니는 데 익숙해 지기위해 막대기를 들고 훈련을 시작해야 했다. [...]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어서 코카 잎을 음식과 교환했다. [...] 장난감을 내려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 훈련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정글에서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 FARC 지도자들은 소총을 건네기 전 나무총으로 3개월 동안 아이들을 훈련시켰다. [...] 어릴 때 끌려오면 포주의 먹이로 살아간다. 원하지 않아도 남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Camilla Osorio 2020.07.08.)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징집으로 무력분쟁에 개입하여 전사, 성노예, 요리 및 가사노동, 정보원, 가이드 및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FARC는 15~17세 청소년을 징집하여 폭력행위에 동원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 9,870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희생되었다. 소녀들은 무엇보다도 성노예로서 학대와 착취에 시달렸다. 전 AUC 요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카우카 지역 AUC 지휘관들은 [...] 12세에서 14세 사이 소녀들과 함께 거주한다. 그녀들은 성노예로 성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신부의 경우 탈출시도 정보가 접수되면 보복으로 살해되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녀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아이를 강제 낙태 하였다.”(El País 2021.08.12.)

룰루(Lulu)는 12세 당시 안티오키아에서 ELN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군사훈련과 성적학대에 시달렸으며 성노예로 살았다. 심신이 지친 그녀는 동료에게 성을 상납하고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룰루

의 마을은 이미 또 다른 게릴라조직 FARC가 점령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홀로 메데인(Medellín)으로 이주하여 13세부터 성 노동에 종사했다(CNMH 04 de Jun de 2015).

“나는 전투원이었다. 1985년 12월 12세의 나이로 FARC에게 납치되었다. 그것은 징집이라고 할 수 없다. 납치된 날 밤 나는 게릴라에게 강간을 당했다. 강간은 반복적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낙태로 이어졌다.”(Comisión de Verdad 2019.07.27.)

2020년 강제징집은 전년대비 113%나 증가했으며, 2019년~2022년 등록된 젠더박해 피해사례 133건 중에서 72건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징집된 청소년들은 마약복용을 강요당하며 코카인 제조 실험실에서 노동을 하거나, 마약 판매를 전담했다. 공권력도 강제징집을 통해 청소년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Camila Osorio 2022.07.08.).

12세 당시 FARC에 의해 강제 징집되었던 헤수스(Jésus)에 의하면 게릴라조직은 소년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소녀들을 동원하여 유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집을 유인한다. 자신들의 유인책이 통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 주민을 협박한다. 헤수스는 함께 훈련받던 친구의 사망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귀가 조치되었다. 그는 거주지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결국 헤수스는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또 다른 게릴라조직 ELN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12세에 최전선에서 소총을 들고 다양한 무장조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잔인하지 않나요? [...] 당신들이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총을 겨누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에게 명령한 지휘관은 친구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Noticias Caracol 2021.02.28.)

정부와 협상을 중단한 ELN와 AGC는 농촌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징집하여 마약밀매 및 폭력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 피해자들은 주로 강제징집과 관련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제징집을 거부한 아동들은 성폭력 표적대상이 된다. 심지어 학교까지 침입하여 납치하고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Carolina Ávila 2021.05.17.).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초코지역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원주민 법률고문 헤라르도(Gerardo Jumi Tapias)는 원주민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이 강제징집을 피하는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집 대상 청소년의 자살은 안티오키아, 나리뇨 그리고 카우카에서도 발생한다(Infobae 2022.03.19.).

“초코지역의 강제징집은 매우 심각하다. [...] 우리는 AGC도 원주민 청소년 강제징집과 관련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재 초코지역에서 발생한 30건의 청소년 자살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강제징집 대상 청소년의 자살로 무장조직은 생존 가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과소 보고되고 침묵되고 있다.”(ibid)

3. 강제매춘 및 기타 젠더박해

분쟁지역 여성들은 불법무장조직 남성과 강압에 의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성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그리고 성적학대 및 성 노예화는 콜롬비아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서적 관계 형성 이후 대부분의 여성은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을 통해 무장한 남성의 경제적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되었다. 납치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모든 유형의 성노동과 가사노동에 동원되었다. 2001년 5월 푸투마요에서 납치된 22세과 23세 자매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 밤에 우리들은 성 매매를 위해 도착한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만했다. 가끔 12명의 남자까지 상대해야 했고, 낮에는 산에서 도착한 그들이 우리들을 감금했다. 점심도 주지 않았고 간식도, 물도 주지 않았다. 하루 한 끼만 주었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갔다. 가끔 아주머니들이 우리에게 점심을 주었고, 물도 주었을 뿐이다.”(Angy Viviana 2017.11.06)

분쟁지역 무장조직은 여성의 행동과 생활을 통제했으며,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정당화하였다. 자신들이 제시한 규범을 어길 경우 도발적이거나 암시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가했다(Mesa de Trabajo Mujer y Conflicto Armado 2003:79-87).

“[...] 무장조직은 마을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 그들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 오후 6시경 이미 집에 있어야만 했다. 규칙을 위반하고 길에서 만나게 되면 죽음이 기다렸다. 그들은 [...] 규칙을 부과하고 명령했다. [...] 그들은 여성들을 강제매춘에 동원하여 경제적 이윤을 누렸다. [...] 강제매춘은 무장조직이 부여한 행동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가해졌다.”(Angy Viviana 2017.11.06.)

분쟁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은 지배자 혹은 적과 대면하는 무장한 남성의 “영웅적”인 행위이며 여성과 비무장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무장한 남성의 이익추구에 희생된다. 무력분쟁은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효과적이고 반복적인 희생을 구체화 한다(Osorio, 2008). 전 AUC 요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들 중 두 명이 여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공격하고 뒤에서 강하게 머리를 잡아당겼으며 그녀에게 가진 것 중 값있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 준군사조직은 무기로 그녀의 팔에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그녀에게 100만 페소와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그들은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 돼지를 다루듯 그녀의 팔과 다리를 퐁퐁 묶었다. 그녀는 옷이 찢겨지고 알몸이 되었다. [...]” (El Tiempo 2017.11.06.)

한편,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분쟁지역을 탈출한 젠더박해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이는 인근도시로 이주한다. 육체와 정신적 트라우마가 혼재되어 있는 임시 정착촌의 삶은 실향민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메데진 외곽 산 하비에르(San Javier), 비야 에르모사(Villa Hermosa) 그리고 마니케(Manique)에는 실향민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시내중심에 위치한 마노 데 디오스(Mano de Dios) 실향민 정착촌은 2003년 인종차별과 실향민에 대한 혐오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멸되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실향민의 삶은 여전히 인신매매, 성 착취, 성폭력의 불안이 지속된다. 실향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마약과 알코올 및 향정신성 물질에 의존한 일탈행위로 현실도피를 시도한다(Sánchez Daniela 외 2018).

젠더박해 피해자들은 성병, 에이즈, 불안, 우울증, 심리적 혼동 및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과잉행동 장애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성 피해자들은 인종차별과 실향민에 대한 혐오에 시달리며,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립된 생활을 유지한다. 성기가 거세되거나 절단된 남성들은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실향과정에서 가정은 붕괴되며, 여성은 가장으로서 비공식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재생산한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여성들은 생계수단으로 성 노동에 종사한다. 국내실향민 자녀들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이탈하여 노동하는 아동으로 성장하며 가족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Donny Meertnes 2021:382-409). 아동 매춘 역시 국내실향민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IV. 맺음말

장기 무력분쟁 전개과정에서 콜롬비아는 세계적 규모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 기존의 원인에 더하여 젠더박해는 강제이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젠더박해는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주변화 된 여성뿐만 아니라 이성에 남성들도 대상이 되었다. 분쟁지역의 젠더박해는 주로 성폭력과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으며, 성폭력은 일탈행위가 아닌 힘과 권력에 의한 억압의 기제로 동원되었다. 성폭력은 적의 권위약화, 주민통제 그리고 강제이주 조장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분쟁격화 지역일수록 극단적 형태의 젠더박해가 발생했으며 젠더박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기초한 권력과 관련을 맺고 발생한다.

그동안 젠더박해는 주로 성별에 기반 한 불평등과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성에 외에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남성 젠더박해 피해사실이 축소되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 하여 강화된 이성에 남성의 성적특권으로 남성 젠더박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로 간주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관념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남성 젠더박해가 기존 젠더박해 범주로 이해되고 통합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기관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성젠더 박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상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여전히 배제와 소외 그리고 편견을 경험한다.

무력분쟁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역시 강제징집 및 납치되어 강간, 강제입신과 낙태, 성노예 및 성적학대 등 젠더박해 대상이 된다.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압에 의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에 동원되어 무장한 남성의 이익추구에 희생된다.

콜롬비아의 분쟁지역 젠더박해 피해자들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을 소환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다. 약자와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소외된 경험을 복원하여 고립된 사람들의 경험이 더 이상 배제되는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1997),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 김태명(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연구』, 5-44.
- 김현미(2015), 「젠더와 사회구조」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동녘.
- 엄기호(2015),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동녘.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 Amnistía Internacional(2004), "Colombia Cuerpos Marcados, Violencia Sexual contra las Mujeres en el Marco del Conflicto Armado, *Crímenes Silenciados*. Editorial Amnistía Internacional, 25-27.
- Antonio José P. & Antonio Iañez(2014), “Violencia Contra la Mujer y Desplazamiento Forzado: Analisis de las Estrategias de Vida de Jefa de Hogar en Medellín”, *Acta Sociológica*, No.65, Septiembre-Diciembre, Medellín, 60-169.
- Camilo Noreña-Herrera S. Andrés(2022), *Violencia Sexual en un Municipio de Colombia: Características de las Víctimas y de Sus Victimarios 2011-2020*. Facultad de Enfermería, Universidad CES. Medellín. Colombia.
- Carcedo A(2010). “No Olvidamos, Ni Aceptamos: Femicidio en Centroamérica 2000-2006”, *Cefemina y Horizons. Colombia*.
- Cárdenas López 외(2017), *La Mujer como Instrumento de Guerra en Colombia y Su Papel en la Construcción de la Paz: De Género y Guerra. Nuevos Enfoques en los Conflictos Armados Actuales*. Editorial Universidad del Rosario. Bogotá.
- Defensoría Delegada para la Prevención de Riesgo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2018), *Información Especial de Riesgo: Economías*

Ilegales, Actores Armados y Nuevos Escenarios de Riesgo en el Posacuerdo, Humanos y el DIH Sistema de Alertas Tempranas(SAT), Bogotá.

Elvira Sánchez-Blake(2016), “La Ruta Pacífica de las Mujeres: Repertorios Simbólicos en la Búsqueda de Paz y Reconciliación en Colombia”, *Revista Colombiana de Educación*, (71).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2014), "Impacto del Conflicto Armado en el Estado Psicosocial de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Convenio*, No.36, Noviembre. 63-83.

Kapur Amrita and Muddel Kelli(2016), *When No One Calls It Rape: Addressing Sexual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in *Transitional Contexts*.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Lina M. Céspedes-Báez(2018), *Género y Memoria Histórica Balance de la Contribución del CNMH al Esclarecimiento Histórico*. Centro de Memoria Histórica.

Medina Avaleria(2021), *La Violencia Sexual como Armado dentro del Conflicto*, Universidad Eafit, Departamento de Derecho. Medellín, Colombia.

López G. Daniela(2019), “Investigación de la Violencia Sexual Contra Hombres. Balance Teórico”, *JUSTITIA*, No. 17, 83-91.

Meertnes, Donny(2021). “Ensayos sobre Tierra, Violencia y Género”, *Facultad de Ciencias Humanas. Colección CES*,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382-409.

Mesa de Trabajo Mujer y Conflicto Armado(2003), *Informe sobre Violencia Sociopolítica Contra Mujeres, Niñas y Jóvenes en Colombia*, Bogotá.

_____ (2004), *Informe sobre Violencia Sociopolítica Contra Mujeres, Niñas y Jóvenes en Colombia*, Bogotá.

Orosio, F. E(2008), “Forced Displacement Among Rural Women in Colombi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3, 35 (6), November, 29-40.

Rodríguez Sánchez R(2017), *Ley 1776 de 2016(Ley Zidres): Explotación*

Económica de las Zidres Mediante Proyectos Productivos no Agropecuarios. Bogotá:Universidad Católica de Colombia.

Sanmiguel Moreno(2017), *Ley Zidre Reforma Agraria o Vía Libre a la Adjudicación Irregular de Baldíos?*, Bogotá: Eutopia Univerdiudad Católica de Colombia.

Vidal Roberto(2005), *Derecho Global y Desplazamiento Interno. La Creación, Uso y Desaparición del Desplazamiento Forzado por la Violencia en Colombia*. Bogotá: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1999), "La Farsa de la Preocupación: El Abandono de la Poblacion Desplazada por la Violencia en Colombia", 10-11.

[보고서 및 언론보도]

구효주(2021.01.14.), 「전통적 남성성의 해체와 변화하는 남성성」,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6>
(검색일:2022.04.29.)

유엔난민기구(2020), 『UNCHR 2020 연례보고서』.

유엔난민기구(2021), 『UNCHR 2021 연례보고서』.

유엔난민기구(2022), 『UNCHR 2022 연례보고서』.

Ávila Carolina(2022.05.17.), 「Falta de Clases Aumentó el Reclutamiento Forzado en Colombia」, 『El Espectador』.

<https://www.elespectador.com/colombia-20/paz-y-memoria/falta-...reclutamiento-forzado-en-colombia-article/>(검색일:2023.04.02.)

Alavrd R. Angy(2017.11.06.), 「Desgarradores Testimonios de Víctimas de Violencia Sexual por 'Paras」, 『El Tiempo』.

<https://www.eltiempo.com/justicia/conflicto-y-narcotrafico/testimonio-s-de-victimas-de-violencia-sexual-de-paramilitares-central-bolivar...>

(검색일:2023.04.02.)

CNMH(2015.06.04), 「No Más Silencio ni Impunidad Frente a la Violencia Sexual」, 『Centro de Memoria Historica』.

<https://centrodememoriahistorica.gov.co/tag/violencia-sexual/>(검색일: 2023.04.05.)

CODHES(2021.12.22.), 「Número de Víctimas de Desplazamiento en 5 Años」, 『CODHES Boletín Informativo no. 51』,
<https://codhes.wordpress.com/2021/12/22/...victimas-de-desplazamiento-...anos/>(검색일:2023,03.10.)

Comisión de la Verdad(2019), 「La Verdad de las Víctimas de Reclutamiento Forzado」,
<https://www.comisiondelaverdad.co/la-verdad-de-las-victimas-del-reclutamiento-forzado/>(검색일:2023.03.21.)

_____ (2019.07.27.), 「La Verdad de las Violencias Sexuales que ha Dejado la Guerra en Colombia」.

<https://web.comisiondelaverdad.co/actualidad/noticias/la-verdad-de-las-violencias-sexuales-que-ha-dejado-la-guerra-en-colombia/>(검색일:2023.03.22.)

_____ (2022.09.24.), 「Qué Pasó con las Violaciones a Derechos Humanos Durante el Conflicto?」, 『Dejusticia』,
<https://www.dejusticia.org/que-paso-con-las-violaciones-a-derechos-humanos-durante-el-conflicto..informe-final-de-la-comision-de-la-verdad/>(검색일:2023.04.04.)

Daviad L. Juan(2019.11.19.), 「Así Investiga la JEP 8.839 Casos de Niños Reclutados por las Farc」, 『El Tiempo』
<https://www.eltiempo.com/justicia/jep-colombia/las-investigaciones-en-la-jep-sobre-reclutamiento-de-ninos-por-parte-de-las-farc/>(검색일: 2023.03.25.)

El Espectador(2020.05.07.), 「Falta de Clases Aumentó el Reclutamiento Forzado en Colombia」, 『El Espectador』,
<https://www.elespectador.com/colombia-20/paz-y-memoria/falta-de-clases-aumento-el-reclutamiento-forzado-en-colombia-article/> (검색일: 2023.04.02.)

El País(2021.08.21.), 「Las FARC Reclutaron a Más de 18.000 Niños como

- Soldados en Colombia」, 『El País』.
<https://elpais.com/planeta-futuro/2021-08-12/las-farc-reclutaron-a-mas-.....en-colombia.html>(검색일:2023.03.27.)
_____(2022.03.27.), 「Los Hombres Violados en la Guerra de Colombia Rompen el Silencio」, 『El País』.
<https://elpais.com/planeta-futuro/los-hombres-violados....colombia-rompen-el-silencio.html>(검색일:2023.03.22.)
_____(2022.07.08.), 「Voces de los Niños de la Guerra: “Los Colegios se Volvieron Salas Fúnebres」, 『El País』.
<https://elpais.com/america-colombia/2022-07-08/las-voces-de-los-ninos-de-la-guerra-los-colegios-se-volvieron-salas-funebres?...REGCART&ocerrado>(검색일:2023.04.23.)
- Gabriel Gallego(2022.02.20.), 「Violencia Sexual contra Hombres en el Conflicto Armado」.
<https://razonpublica.com/violencia-sexual-hombres-conflicto-armado/>
(검색일:2023.03.25.)
- García Harold(2015.05.26.), 「Un Grito contra la Violencia Sexual y de Género」, 『Centro de Memoria Historica』.
<https://centrodememoriahistorica.gov.co/tag/violencia-sexual/>(검색일:2023.04.25.)
- Infobae(2022.03.19.), 「Por lo Menos 30 Niños Indígenas en Chocó se han Suicidado para Evitar ser Reclutados por Grupos Armados」, 『Infobae』.
<https://www.infobae.com/america/colombia/2022/03/19/por-lo-menos-30-ninos-indigenas-en-choco.....para-evitar-ser-reclutados-por-grupos-armados/>(검색일:2023.03.25.)
- Gutiérrez Jennifer & Barbosa Francy(2021.02.16.), 「Desplazamiento Forzado en Colombia ¿Qué Pasó en 2020?」, 『CODHES』.
<https://codhes.wordpress.com/2021/02/16/desplazamiento-forzado-en-colombia-.....en-2020/>(검색일:2023.04.11.)
- Javier O. Sulé(2022.06.19.), 「Deponer las Armas, Retomar las Armas: Violencia Sexual contra Hombres y Niños en el Conflicto Armado

- en Colombia」, 『Público』,
<https://allsurvivorsproject.org/informe-publico-violencia-sexual-hombres-ninos-colombia-19-junio-2022/>(검색일:2023.05.07.)
- JEP(2022.03.15.), 「Hombres Víctimas de Violencia Sexual Entregarán Informe a la JEP en Santa Marta」, 『Unidad de Investigación y Acusación Comunicado No 121』,
<https://www.jep.gov.co/JEP/documents1/Comunicado%20UIA%20No.%20121%20-.....violencia%20sexual%20entregar%20C3%A1n...JEP%20en%20Santa%20Marta.pdf>(검색일:2023.02.15.)
- Molinares D. César(2008.08.20.), 「Una Silenciosa Estrategia de Guerra: Violentar a las Mujeres」, 『verdadabierta』,
<https://verdadabierta.com/las-mujeres-y-los-crimenes-silenciados/>(검색일:2023.05.05.)
- ONU(2019.02.15.), 「Migración Colombia Testimonio: Nuestra Reparación」, 『Red de Mujeres Víctimas y Profesionales. Comunicado Local』,
<https://colombia.iom.int/es/news/testimonio-nuestra-reparacion-red-de-mujeres-victimas-y-profesionales>(검색일:2023.04.07.)
- _____(2013.07.02.), 「Workshop on Sexual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in Conflict Situations, Nueva York 25-26」,
<http://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summary-report-of-workshop-on-men-and-boys/Workshop-on-Sexual-Violence...Conflict-Situations.pdf>(검색일:2023.04.02.)
- Porindicadores(2022.08.17.), 「Desplazamiento Forzado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en México」,
<https://...derechosinfancia.org.mx...desplazamiento-forzado-de-ninas-ninos-y-adolescentes-en-mexico..2021>(검색일:2023.05.05.)
- Red de Mujeres Víctimas y Profesionales. Grupos Focales de Hombres Víctimas de Violencia Sexual(2022.06.19), 「All Survivors Project」,
https://www....Profesionales.+Grupos+Focales+de+Hombres+V%C3%ADctimas+de+Violencia+Sexual&gs_...sclient=gws-wiz(검색일:2023.05.02.)

❖ ABSTRACT

Displaced People in Latin America and Gender
Persecution: With a Focus on Domestically
Displaced People in Colombia

Cha, Kyung M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migration in Latin America over the last 20 years, the size of domestically displaced people expanded and the number of displaced people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violation based on gender, in addition to the longer period of displacement and existing causes of displacement.

Forced displacement spread by focusing on the natives and African descendants in the armed conflict situation of Latin America. Extreme violence towards displaced people occurred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based on power that is rooted in patriarchal traditional culture of the Latin American society. Persecution of gender was developed at par with everyday violence that is inherent in society, not in special circumstances like armed conflicts. Regional conflict's special circumstances and vulnerability, and needs have been underestimated in studies on forced displacement in Latin America.

Inspired by these point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migration and gender persecution in Latin America by focusing on cases of regional conflict among people displaced in Columbia where the most domestically displaced people in

the world have been kept.

Key words: Armed Conflict, Power & Hierarchy, Gender Persecution,
Displaced Peopl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 논문투고일 : 2023. 05. 20

■ 심사완료일 : 2023. 06. 08

■ 게재확정일 : 2023. 06. 09